

Stage 11+ Time Chronicles : Tyler: His story (타일러: 그의 이야기)

Storybook?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책을 읽기 전에 ...

독자들께

크로니클스 책을 읽기 전 비프, 칩, 키퍼와 친구들은 타임러너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장소인 타임볼트를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과거를 여행하면서 바이런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바이런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어두운 힘을 가진 괴물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역사를 파괴하고 미래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타임러너들은 용감하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바이런들을 잡을 수 있는 잭 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요 모양을 한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링크는 타임볼트에서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과학 강의

1800년대 초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처럼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세상 전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모두가 과학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Chapter 1

“폭탄이다!” 타일러는 외쳤습니다. “이곳을 다 날려 버릴 거야. 모두 대피시켜!”

그는 타오르는 화염과 불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발로 꺼!” 그는 외쳤습니다. “그건 퓨즈야!”

그의 앞에 트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캄한 공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뒤틀렸습니다. 그의 팔은 흑 잡아당겨 쪘습니다. 타일러는 바닥에 부딪히며 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타일러!” 월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타일러는 그의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은 채 도서관의 안락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나 몹시 나쁜 꿈을 꾸고 있었어.”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다리의 통증을 느껴, 그 사고 이후로.”

윌마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무슨 사고? 타일러는 과거에서 타임 볼트로 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키퍼는 타일러의 테크노 의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딤이 반 정도 게임이 진행된 체스판을 가지고 출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는 도서관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키퍼가 외쳤습니다. 테크노 의자는 미끄러졌습니다. 나딤은 옆으로 뛰었지만, 체스 조각들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키퍼! 이 바보야!" 나딤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게임을 망쳤어." 키퍼는 의자에서 뛰어 내려 체스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나딤이 불평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딤."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내가 되돌려줄게. 조각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타일러의 말이 나딤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너는 지나치게 똑똑해, 타일러."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키퍼 너! 너 완전 성가셔, 이제 사과해!" 키퍼는 체스 조각들을 다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너도 골칫덩이야, 나딤." "얘들아, 그만해!" 윌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임 볼트에서 어떠한 말씀도 부려서는 안 돼."

Chapter 2

비프와 윌프는 오락실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비프는 당구를 세게 쳤습니다. 당구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프의 당구채가 형겁을 길게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프!" 윌프가 소리쳤습니다. "완전 명청했어!"

"나보고 명청이라고 하지 마." 비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 비프의 주머니에 있는 링크가 울렸습니다. 윌프의 링크도 울렸습니다. "비상사태?" 비프가 말했습니다.

링크는 고성능 통신 장치였습니다. 비프는 자기 것을 열어봤습니다. 윌마가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회의. 도서관. 10분 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Chapter 3

모두가 도착하자 윌마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엉망진창이 된 상황은 멈춰져야 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지냈었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키퍼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비프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윌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윌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화풀이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루해."

"지루하다고!" 타일러가 외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예전에 내가 살던 것처럼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살아봐! 책, TV, 컴퓨터, 휴대전화도 없이. 씻을 곳도 볼일 볼 곳도 없다고 생각해 봐. 잠잘 침대도 없이 끈적거리는 늙지대를 지나다닌다고 상상해 보라고. 춤고 배고픈 채로 온종일 비가 오는 걸 쳐다보면서 그냥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겹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그들은 놀라서 타일러를 쳐다봤습니다. 윌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타일러. 나는 몰랐어.”

“우리 엄마는 내가 지루하다고 말하면 화를 냈었어.”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너는 전에 너의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잖아.” 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일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고아라서 그렇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타일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게 될 거야.”

이것은 타일러가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Chapter 4

우리 엄마는 아름다웠지. 프랑스인이었어. 아빠는 영국 해군 장교였어. 아빠는 1901년에 바다에서 살해당했지. 그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 이후 엄마는 병이 났고 몸 저 누었지.

그 날 밤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나는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달려갔지.

나는 문을 두들기며 흐느꼈어. “제발 와주세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그가 나에게 한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나는 지금 저녁 식사 중이야! 네 엄마가 프랑스 여자라면, 아침에 가겠다.” 그리고 그 의사는 문을 쿵 닫아버렸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난 고아가 된 거야. 난 9살이었어. 엄마가 죽은 후, 집주인은 집세가 밀려있다고 말했어.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신 어머니의 보석을 가져가 버렸지. 그리고 그는 나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

나는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갈 곳도 없었지. 몇 가지 옷과 어머니의 물건을 챙겨 가방을 쌌어. 갑자기, 나는 거리의 고아처럼 노숙자가 된 거야.

런던에서 잠잘 곳을 찾는 건 쉽지가 않아. 첫날밤, 나는 출입구에 웅크리고 있었어. 술에 취한 한 여자가 나를 보더니, 목을 졸랐어.

“그 가방을 가져가겠어.” 그녀는 속삭였어.

다행히도, 나는 따뜻하게 있으려고 내 옷을 전부 입고 있었어. 그러나 그 여자가 나머지 모든 것을 훔쳐 가버렸지.

나는 항상 배가 고팠어. 사람들이 버리거나, 먹다 남은 것과 상한 것들을 먹었어.

나는 곧 거리의 부랑자들을 만났지. 그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 그들 대부분은 냄새가 났고 누런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는 뻣뻣하게 엉켜 붙어 있었어. 그들은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곤 했었지.

그들 중 하나가 나에게 잠자기 좋은 최고의 장소는 지붕이라고 말했어. “높을수록 안전해.” 라고 그는 말했지. “네 등을 따뜻하게 해 줄 뜨거운 굴뚝을 찾으면 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매일 나는 코벤트 정원의 큰 시장에 가곤 했어. 전 세계에서 배로 온 물건들은 템즈 강에 도착해서 그곳 시장에서 팔리거든-비단, 향신료, 도자기, 빛깔 유리잔, 상아, 원숭이와 앵무새 같은 것들도.

나는 나 자신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거리의 부랑자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들은 물건을 훔쳤고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아 갔어.

나는 시장 주변에서 일을 했어. 사과나 신선하지 않은 케이크로 보수를 받았어.
한번은, 한 여자가 나에게 지폐 하나를 줬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서진 빗 하나를
샀어.

Chapter 5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 그건 1803년 5월 13일이었어. 영국은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어. 나폴레옹의 군대가 영국을 침범할 준비를 했던 거야.
신문에서 내가 이 사실을 읽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는 글을 읽지 못하니까 나에게 그걸
읽어주면 내가 너에게 파딩 지폐 한 장 줄게.”라고 말했어.
“1 페니 주시면 읽어 드릴게요!” 나는 말했어. “1/2 페니는 어떠니?” 그는 대답했지. 나는 그렇게
했어. 그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

밤에 따뜻하게 지내기는 힘들었어. 어느 날 나는 로열 재단이라고 불리는 큰 건물 밖에 멈춰
섰어. 그곳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는 곳이었지. 사람들은 자석에 대한 과학 강의를
들으려고 밖에서 줄지어 서 있었어.

“강의는 공짜인가요?” 나는 한 남자에게 물어봤어.

“응,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그는 말했어.

“좋아.” 나는 생각했어. “나를 들여보내 준다면, 나는 한 시간 동안은 따뜻하게 앉아있을 곳이
있는 거야.”

나는 강의를 들으러 갔어. 나는 자석이 하는 역할에 놀랐지. 그것들이 자기장을 가지는 방식과
북쪽을 향해 흔들리는 금속 화살표를 만드는 방식에. 그 후, 나는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갔어.
별들과 행성에 관한 강의도 있었어.

때때로 나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어. 그러나 어떤 날에는 도서관 문이 닫혀있었지.
과학자들, 탐험가들, 작가들처럼 중요한 사람들은 성대한 저녁 식사를 위해 그곳에서 만나곤 했어.
그때쯤 나는 건물들의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에 꽤 능숙했어. 그리고 로열 재단 뒤에서 나는
지붕 위에 달린 창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았어.

나는 올라갔고, 그 창문을 통해 다락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곳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퉁이에는 더럽고 오래된 커튼 더미가 있었어. 마침내, 나는
안전하게 잘 수 있는 농눅하지 않고 따듯한 공간을 발견했던 거야.

일주일 후, 나는 용감해지는 걸 느꼈어. 그래서 어느 달빛 빛나는 밤, 나는 그 건물을 살펴보려고
좁은 다락방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왔어. 그 건물은 귀족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집이었지.
넓은 계단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있었지.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나는 취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어. 나는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

아래층에서는 늦게 저녁 식사를 했어. 아무도 치우지 않았던 거야. 남은 음식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어-고기, 빵, 젤리, 그리고 과일.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 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는 얼어붙었어!

나는 낮은 목소리들을 들었어. 그러더니, 랜턴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깜깜한 방들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나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지. 내 심장은

드럼처럼 킁킁거렸어. 놀랍게도, 그들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어.

나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 대화에서 '불꽃들'이랑 '불' 같은 단어들을 들었고 프랑스에 대한 어떤 말도 들었어. 그들 중 하나가 '과학 파괴'에 대한 뭔가를 말했어. 그들은 '초'와 '폭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지.

그들이 가버렸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살금살금 갔어. 잠들기가 힘들었어. 두 프랑스인은 왜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을까?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 중이니까, 그들은 비밀요원이나 스파이인 걸까? 그들이 뭔가에 불을 지르거나 폭발시키려고 한 걸까?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그것을 들었는지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누가 나 같은 거리의 고아를 믿을까?

Chapter 6

그 후 나는 로열 재단에서 큰 과학 강의에 관한 글을 읽었어. 유명한 과학자들과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고 있었어. 심지어 수상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강의는 산소에 관한 것이었고 어떻게 물질들이 연소하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 산소가 없으면, 불꽃은 사라지지. 그것은 새로운 과학이었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많이 몰랐지.

그 강의가 있던 날, 나 혼자 강의실에 일찍 들어갔어. 그곳은 곧 사람들로 가득 찼어. 한 키 큰 남자가 나에게 내 의자에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그머니 가서 바닥에 앉았어.

강의가 시작되었어. 커튼이 내려와 강단을 어둡게 했지. 곧바로, 과학자는 많은 초에 불을 붙였어. 그는 산소가 공기 중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어. 초와 같은 것들은 산소 없이 탈 수가 없었어. 공기가 없으면 초는 꺼졌지. 순수한 산소에 노출되어야, 작은 불씨가 불길이 되어 타올랐지.
그리고 나는 기억했어! 프랑스 사람들이 '불'과 '불꽃'을 말했었어. 그들은 '과학을 파괴해'와 '폭발'이라는 말도 했었지!

심장이 요동쳤어. 그들은 강의 동안에 폭발을 일으킬 계획이었을까?

갑자기, 초 하나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

동시에 나는 보았어, 바닥을 따라 길게 놓여있는 검은 화약 가루. 화약가루! 그 자국은 과학자 뒤에 있는 묵직한 벨벳 커튼으로 이어져 있었어.

흩어진 초에서 불꽃들이 화약 근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나의 아버지는 화약에 대해서, 그리고 불꽃 하나가 어떻게 폭발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었어.
나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지.

"폭탄이야!" 나는 소리쳤어. "이곳을 날려 버릴 거예요. 모두 나가세요!"

길게 늘어진 화약 가루에 불꽃이 붙었어. 그 화약가루 자국은 성난 뱀 같은 소리를 내며 타들어 갔어. 눈 깜박 한 것보다 더 빠르게 화염과 불꽃이 붙었어. 나는 뛰어올라 그것을 향해 달렸지.
"발로 밟아요!" 나는 소리쳤어.

나는 커튼 사이로 불쑥 나갔어. 화약가루 자국은 열려있는 함정 입구에 벌써 가까워져 있었어. 그 순간 나는 화약통 몇 개가 강단 아래 지하 창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화약 자국이 거기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화약통이 폭발하게 될 것도 알게 됐지.

나는 거꾸로 뛰어들었어. 나는 화약 자국을 미끄러지듯 지나가 함정 입구로 빠졌지.
“큰 폭발이 일어날 거야!” 나는 생각했어.
나는 공중에서 뒤틀렸어. 그리고 나서 나는 통 위에 세게 떨어졌고 돌 바닥에 부딪혔지.
나는 폭발을 기다렸어.
나의 다리는 내 무게 때문에 구부러졌다.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 나는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지. 고통은 끔찍했어.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어. 내 손과 재킷은 검은색이었어. 화약가루를 지나 거꾸로 뛰어들면서
바닥이 깨끗하게 닦였던 거야!
폭발은 없었어.

Chapter 7

두 남자가 지하 창고로 뛰어왔어. 그들은 나를 들고 나가기 위해 내 팔과 발목을 붙잡았어.
고통스러웠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기절해버렸어.
나는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에서 깨어났어. 그들은 내 다리를 나무 부목에 두고 그 주변을
붕대로 감쌌어. 나는 내 바지가 찢겨서 화가 났어.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내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 봄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자주 넘어져.
내가 영웅이었을까? 그날 나는 수많은 목숨을 구했어. 내가 메달을 받았을까? 너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두 명의 프랑스인 스파이가 폭발을 일으키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지.
거기에서 나를 언급했을까? 아니! 나는 거리의 부랑아였잖아!
그로 인해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어.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 영국의 화학자)라는 한
소년이 강의하는 곳에 있었던 거야. 그는 병원에 있는 나를 보러 왔었어. 그는 음식과 책들을
가져왔어.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어. 나중에 그는 나에게 바퀴가 달린 의자를 만들어주어서, 나는
움직일 수가 있었어.
타일러가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월마가 적막을 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왜 그렇게 행운아인지 알겠지.” 타일러가 대답했습니다. “과거 어떤 아이들에게는
삶이 쉽지가 않았어. 아마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는 삶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자 니나가 말했습니다. “그 강의실을 폭발하려고 했던 프랑스 스파이들… 너는 그들이
바이런이었다고 생각하니?”
타일러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글쎄,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들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를 만나기 전에는 바이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한가지는 알겠어.” 키퍼가 말했습니다. “타임 볼트에서 상황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어.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좋은 책을 끼고 조용히 있을 거야.”
“그래, 키퍼.” 윌프가 말했습니다. “난 널 믿어!”

타일러의 미션 보고서

장소:

날짜:

타임 볼트

오늘

미션 상태:

바이런 상황:

미션 없음

승인: 타일러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나는 모두에게 화가 났었어. 내 말은, 타임 볼트에서의 생활은 너무 편한데 그들은 그저 난리를 치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과거에서 왔어. 200년 이상을 넘어 미래에서 사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지. 나는 내가 단순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는 거야. 타임 볼트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완전히 새로울 거로 생각해?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네가 1990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

네 집 주방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역사: 다운로드 됨

과학의 시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달걀, 버터, 밀가루와 설탕과 같은 재료들을 함께 섞습니다.

재료들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변하면 케이크가 요리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요소(성분)라고 불리는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철, 구리, 칼슘, 헬륨 등 성분 중 몇 가지를 여러분은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물 또한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의 신체 부분은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리고 인.

약 250년 전까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그저 4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흙, 불, 공기 그리고 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은 사실이 아니며, 산소와 같은 성분들이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시작했을 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산소는 3명의 과학자에 의해 거의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조지프 프리스틀리(1733~1804 영국의 화학자) 산소에 대해 논문을 출간했기 때문에, 그는 1774년에 신임을 얻었습니다.

대중이 이런 발견에 매우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많은 청중 앞에서 강의와 실험을 했습니다.